

국내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동향 - 이전 시기(1998년~2008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혜영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사수료)

조은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국내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동향 분석을 위해 2009년~2019년 사이 KCI 등재지에서 발표된 7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별 분석을 위해 Wampold와 Holloway(1997)의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상담대상별, 슈퍼비전 유형별, 발행기관별, 연구방법별 동향도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이전 시기(1998년~2008년) 등재지에 실린 21편의 연구와 비교되었다. 분석 결과, 2009년 이후 상담 슈퍼비전 논문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양적으로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슈퍼바이저 특성과 슈퍼비전 과정에 대한 논문의 양적 증가가 컸다. 또한 슈퍼바이저 훈련과 윤리, 슈퍼비전의 내용 및 방법, 심리치료과정 분야의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다. 연구방법도 다양화, 고도화되었으며, 질적 연구방법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담대상이나 발표학술지 또한 다양화되는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슈퍼비전, 사회구성주의 슈퍼비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슈퍼비전 연구 동향에 기초하여 향후 슈퍼비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상담 슈퍼비전, 연구 동향, 사회구성주의 슈퍼비전, 연구방법

* 본 논문은 상명대학교 2020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조은숙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Tel : 02-2287-7782 / E-mail : grace123@smu.ac.kr

I. 서론

상담과정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쌍방향적인 교류과정이지만 상담의 결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바로 상담자(Norcross, 2000)로서,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담자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로 슈퍼비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은 슈퍼비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슈퍼비전 연구는 상담분야 연구에서 그 중요도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김광웅, 최명선, 류진아, 정유진, 2006; 이동혁, 유성경, 2000; 조성호, 2003).

지금까지 슈퍼비전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김지연과 김광웅(2008)은 2008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상담 슈퍼비전 연구 46편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슈퍼비전 연구의 포괄적 분석틀로 Wampold와 Holloway(1997)의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모델의 각 요소 중 슈퍼바이저 특성, 슈퍼바이지 특성, 슈퍼비전 과정 등에 슈퍼비전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인과적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담자 특성이나 치료과정 관련 연구는 슈퍼비전과 별도로 연구되고 있어 슈퍼비전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슈퍼바이저 훈련’이라는 연구주제가 동향분석의 틀에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두경희, 김계현과 김동민(2008)의 연구에서는 슈퍼비전 성과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틀의 중축으로는 Wampold와 Lichtenberg, 그리고 Wachler(2002)의

‘경험적으로 지지되는 개입 원칙’의 구체성 수준을, 횡축으로는 Holloway와 Neufeldt(1995)의 영역별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슈퍼비전 성과연구는 ‘슈퍼바이지가 슈퍼비전 회기에 대해 만족하는지’, ‘상담자의 역할을 잘 할 것인지’ 등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연구가 중횡으로 나뉜 분석틀의 한 쪽에 치우쳐져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슈퍼비전 연구의 초기단계인 국내의 연구현황을 반영하는 듯, 연구의 구체성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은 이동향분석을 통해 슈퍼비전 성과연구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방법과 장기적 연구가 포함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손은정(2010)은 슈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 중 국내 연구 7편과 국외 연구 18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중심의 평가적 동향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슈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가 압도적으로 슈퍼바이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한 원리들이 적절히 적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주제가 ‘슈퍼비전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다는 제한점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선입관을 성찰하고 성실히 보고하는 연구 수행,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찰방법의 질적 연구의 도입, 연구 주제 면에서의 다양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문주와 조한익(2016)은 국내 상담자발달 연구의 동향분석을 하였는데, 분석의 하위영역에 상담자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슈퍼비전을 포함시킴으로써 슈퍼비전 연구동향을 일부 고찰하였다. ‘상담자발달’로 검색된 논문 중 적

합하다고 선정된 5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 상담자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17편(30.3%)을 차지했으며, 이 중 슈퍼비전을 연구 주제로 다룬 연구가 1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효과적인 슈퍼비전을 위해서는 슈퍼바이저의 발달단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슈퍼비전 연구와 상담자발달 연구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고홍월, 김하나와 김병관(2016)은 슈퍼비전 척도 연구의 동향분석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 슈퍼비전 연구에서 사용된 43개의 척도(국외 개발척도 33개, 국내 개발척도 7개, 번안척도 3개 등)를 대상으로 척도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슈퍼바이저의 특성과 슈퍼바이저의 특성 및 역량요소를 평가하는 척도는 양적으로 많은 반면, 윤리, 법 규정, 상담과정 등의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는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척도의 개발과 외국척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정지애(2018)가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국내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슈퍼비전 연구주제 중 가장 중요성을 띠는 주제로서 별도의 연구 동향분석을 할 의미가 있다고 보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해당 분야의 연구는 2006년을 시작으로 12편에 불과하여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구대상은 슈퍼바이저에 편중되어 있으며,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에 대한 특성 또한 대부분 “추론된 특성”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직접 관찰을 통

해 상태와 특성을 연구할 필요성, 그리고 양적 연구 일변도의 연구방법에 질적 연구를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2009년에서 2019년까지의 11년간 국내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맥을 이어감과 동시에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슈퍼비전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Wampold와 Holloway(1997)의 틀을 사용함으로써 김지연과 김광웅(2008)의 11년(1998년~2008년)의 연구와 이후의 연구를 비교하고 요소 분포의 변화를 확인함과 동시에, 2009년 이후 슈퍼비전 연구의 양적 증대와 주제 및 내용의 분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제범주의 하위영역은 보다 세분화 시키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른 동향연구(손은정, 2010; 정문주, 조한익, 2016; 정지애, 2018)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상담대상별, 슈퍼비전 유형별, 연구방법별, 그리고 논문의 발행기관별 분포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 또한 이전 11년(1998년~2008년) 동안의 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탐구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2019년 사이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연구주제 분포와 내용은 이전 시기(1998년~2008년)와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2009~2019년 사이 상담 슈퍼비전 연구에서 상담대상, 슈퍼비전 유형, 연구방법, 논문의 발행기관별 분포 등은 이전 시기(1998년~2008년)와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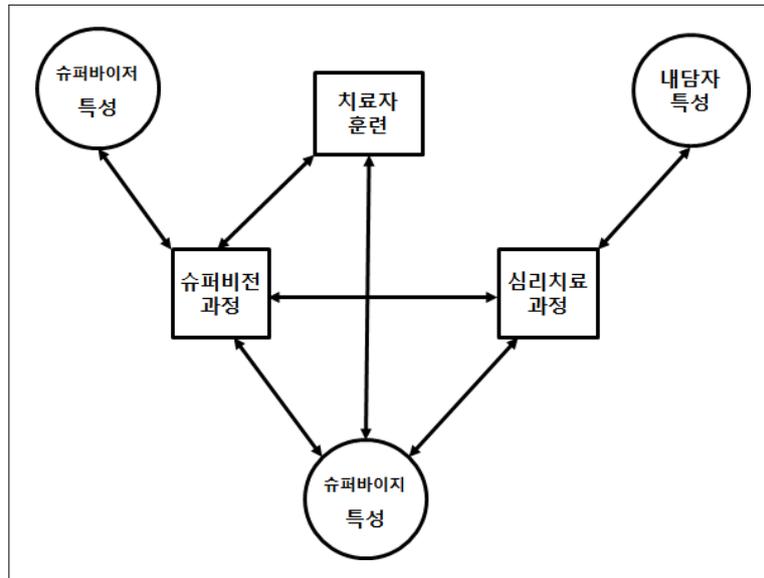
1. 슈퍼비전 연구 동향 분석의 틀

Wampold와 Holloway(1997)의 슈퍼비전 인과적 모델은 슈퍼비전의 다양한 관련 요인들 간의 개념적 틀을 제공해줌으로써 슈퍼비전 연구의 주제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의 틀을 제공한다. Wampold와 Holloway(1997)의 모델에서 제시된 6개의 요소들은 모든 요소가 쌍방향의 인과적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되며, 저자들은 모델이 가정하는 모든 화살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림 1 참고). Wampold와 Holloway(1997)의 모델에서 제시한 구성요소 6개는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슈퍼비전 구성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모델과 다른 연구자들의 틀과의 비교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요소의 하위

영역은 원 모델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세부주제별 분류를 위하여 선행연구(고홍월 등 2016; 소수연, 장성숙, 2011; Olds & Hawkins, 2014)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각 구성요소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슈퍼바이저의 특성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슈퍼바이저의 특성은 슈퍼비전 과정과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요소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홍월 등(2016)의 틀을 참고하여, 슈퍼바이저의 특성을 슈퍼바이저의 발달적 특성과 슈퍼바이저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특성을 합하여 ‘발달적/개인적 특성’, 슈퍼바이저의 역량을 나타내는 ‘임상적 기술’, 그리고 ‘슈퍼바이저의 윤리’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Wampold & Holloway(1997)의 슈퍼비전 인과적 모델

〈표 1〉 타 연구의 분석틀과 비교한 Wampold와 Holloway(1997)의 슈퍼비전 구성요소, 하위요인 및 주요 내용

분류	구성요소	하위요인*	연구1)	연구2)	연구3)	주요 내용
요소1	슈퍼바이저 특성	발달적/개인적 특성	○	○	○	슈퍼바이저 발달과정, 인지·행동·정서적 특성 및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
		임상적 기술	○	○	○	슈퍼비전 과정에서의 전문적 행동기술, 문제 진단 및 사례개념화 역량
		슈퍼바이저의 윤리		○	○	직업적 전문성과 윤리의식
요소2	슈퍼바이저 특성	발달수준	○		○	슈퍼바이저의 유능감, 성장과 성장에 대한 기대
		개인적 특성	○		○	슈퍼바이저의 인지, 행동, 정서적 특성 및 치료적 스타일, 가치, 신념, 문화적 태도 및 사회적 영향
요소3	슈퍼비전 과정	관계	○	○	○	슈퍼바이저-슈퍼바이저 작업동맹의 형성과 유지, 역할 모호, 역할 갈등, 목표와 과업 합의, 정서적 유대
		경험				슈퍼비전에서의 상호작용 경험, 경험에 대한 참가자의 설명
		내용 및 방법		○	○	슈퍼비전 구조화(슈퍼비전 총 기간, 회기, 형태), 슈퍼비전 목표 달성
		평가	○	○	○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슈퍼비전에 대한 평가, 척도개발, 슈퍼비전 만족도
요소4	치료자 훈련	-	○	○	○	슈퍼바이지가 상담 개입기술을 학습하도록 촉진하는 것, 워크숍 및 교육
요소5	심리치료 과정	-			○	슈퍼바이지가 슈퍼비전에서 학습한 상담기법을 상담에서 수행하는 것
요소6	내담자 특성	-				내담자의 독특성과 치료과정 중에서의 문제해결이나 변화
요소7**	슈퍼바이저 훈련	-				효과적인 슈퍼비전을 위한 슈퍼바이저 교육
요소8**	기타	-				요소1-요소7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1) 소수연, 장성숙(2011), 2) Olds & Hawkins(2014), 3) 고홍월, 김하나, 김병관(2016)

* 하위요인은 이전 동향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함.

** 요소7과 8은 Wampold와 Holloway(1997)의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김지연, 김광웅(2008)의 연구에서 추가된 요소임.

2) 슈퍼바이저의 특성

Wampold와 Holloway(1997) 모델에서는 동일

한 슈퍼바이저에 의해 슈퍼비전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슈퍼바이저의 발달수준과 개인적 특

성이 슈퍼비전 과정과 상호작용하여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가정된다. 또한 슈퍼바이지의 특성은 슈퍼바이지에 의해 시행되는 심리치료과정과 상호작용하며, 슈퍼바이지의 교육 및 훈련과도 상호작용한다고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지 특성 요소에 김지연과 김광웅(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발달수준’과 ‘개인적 특성’이라는 하위영역을 두었다.

3) 슈퍼비전 과정

슈퍼비전 과정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역동들을 탐색하고 성찰하는 유동적이지 않거나 ‘잠재적인 공간’(Jacobs, 1995)이다. 여기에는 슈퍼비전 관계, 슈퍼비전에서의 경험, 슈퍼비전의 내용 및 방법, 그리고 평가 등의 영역이 있다. 인과적 모델에서 슈퍼비전의 과정은 슈퍼바이저의 특성, 슈퍼바이지의 특성, 심리치료의 과정, 그리고 슈퍼바이지의 교육 및 훈련 등과 모두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이는 이러한 모든 변수들이 슈퍼비전 과정이라는 중심현상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슈퍼비전 ‘관계’란 슈퍼비전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관계를 말하며 ‘작업동맹’(정지애, 2018) 보다는 큰 개념이다.

슈퍼비전 ‘내용 및 방법’이란 슈퍼비전에서 다루는 내용과 진행방법의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며, 슈퍼비전 ‘평가’는 슈퍼바이저나 슈퍼바이지에 대한 평가와 슈퍼비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김지연과 김광웅(2008)의 동향 분석에서는 슈퍼비전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슈퍼비전 ‘경험’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슈퍼비전 경험은 논리적으로 슈퍼비전 과정의 하위영역이라 할 수 없지만(고홍월 등, 2016; 소수연, 장성숙, 2011;

Olds & Hawkins, 2014), 동향 분석의 틀에서는 슈퍼비전 과정 요소의 하위영역으로 포함시켰다.

4) 치료자 훈련

치료자의 교육과 훈련은 치료자의 성장 뿐 아니라 내담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치료자/상담자 훈련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치료자 훈련이 슈퍼비전과의 관련성 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인과적 모델에서는 치료자 훈련이 치료자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슈퍼비전 과정과 상호작용할 것으로 가정된다. 슈퍼비전 연구에서 치료자 훈련을 연구할 경우, 특정 훈련 프로그램이 슈퍼비전과 병행되는 것의 효과, 치료자훈련프로그램의 큰 틀에서 제공되는 슈퍼비전과 그렇지 않은 개별적 슈퍼비전의 차이 등이 이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다.

5) 심리치료과정

슈퍼비전의 목적은 상담자의 성장과 상담개입의 질적 관리를 통해 심리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인과적 모델에서는 심리치료과정이 그것을 수행하는 치료자(슈퍼바이저)의 특성과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슈퍼비전 과정과 심리치료과정이 상호작용할 것을 가정한다. 예를 들면, 슈퍼비전의 관계가 심리치료의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재현되거나, 그 반대로 심리치료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슈퍼비전의 장에서 반복 재생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소모피즘(isomorphism)’이라 부른다(Todd & Storm,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심리치료과정과 상호작용하는 슈퍼비전

과정에 대한 연구는 2008년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지연, 김광웅, 2008).

6) 내담자 특성

내담자의 특성은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과정을 만들어내고, 상담과정은 다시 슈퍼비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내담자의 특성(연령별, 성별, 문화적 차이, 호소문제 및 정신병리 수준 등)은 다양한 경로로 상담과정과 상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슈퍼비전 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방향의 관계성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김지연과 김광웅(2008)의 분석결과 2008년까지 이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슈퍼바이저 훈련

슈퍼바이저를 훈련시키는 슈퍼바이저 교육 부분은 Wampold와 Holloway(1997)의 모델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제이지만, 슈퍼비전 연구 동향 분석 시 하나의 항목을 구성할 만큼의 연구가 발견되어 김지연과 김광웅(2008)의 연구에서 추가된 주제로서, 본 연구에서도 슈퍼비전 구성요소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III. 방 법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상담 슈퍼비전 연구들 중 KCI 등재 이상의 국내 학회지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1년간의 연구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국내의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분석대상 논문이 너무 많아져 부실한 분석이 우려되어, 연구자들은 등재학술지라는 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한 학문적 기준을 충족하는 논문들을 선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색절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국회도서관, 뉴논문(New Nonmun), E-article 등의 검색엔진에서 주요어를 ‘슈퍼비전’, ‘상담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검색된 연구물 중 연구내용에서 슈퍼비전이라는 개념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상담자 혹은 치료자 변인만 관심을 보인 연구나, 사회복지 및 기타 서비스에서의 슈퍼비전 등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76편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또한 2009년 이후 11년의 연구동향과 그 이전 11년의 연구동향을 병렬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 1998년~2008년에 KCI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1편이 선정되었는데¹⁾, 이 논문들은 김지연과 김광웅(2008)에 의해 본 연구와 동일한 틀로 주제별 범주 분석이 된 바 있다.

각 연구들이 주제별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기 위한 절차는 표 1에 제시된 주제와 하위영역에 따라 연구팀 2인이 논의하고 수차례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다. 1998년~2008년까지의 논문에 대해서는 김지연, 김광웅(2008)이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되, 원 연구에서 하위영역이 없었던 주제가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각 하위영역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1) 김지연, 김광웅(2008)의 분석에서는 KCI 등재 학술지 논문 21편을 비롯하여 등재후보논문, 기타 학술지논문, 석박사학위논문, 대학부설연구논문을 포함한 총 46편 논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

IV. 연구결과

1.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주제별 분포

2009년~2019년 국내 상담 슈퍼비전 논문 수는 총 76편으로, 이전 11년과 비교해 볼 때 등재학술지 기준으로 약 3.6배로 급증하였다. 두 개 이상의 요소에 포함된 연구들을 포함하면, ‘슈퍼바이저 특성’ 10편, ‘슈퍼바이저 특성’ 21편, ‘슈퍼비전 과정’ 50편, ‘치료자 훈련’ 3편, ‘심리치료과정’ 4편, ‘슈퍼바이저 훈련’ 5편, 기타연구가 3편 등 총 96편이었다(표 2 참고). 연구주제별 분포에서는 절반 이상인 50편(52.1%)의 연구가 슈퍼비전 과정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주제 연구는 이전 시기보

다 5배의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 슈퍼바이저 특성 연구는 총 21편(21.9%)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5.3배 양적 성장 하였다. 세부주제까지 검토할 때, 이전 시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연구들이 발견되었는데, 슈퍼바이저 특성에서는 ‘슈퍼바이저 윤리’, 슈퍼비전 과정에서는 ‘슈퍼비전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심리치료과정’과 ‘슈퍼바이저 훈련’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가 있었다(표 2와 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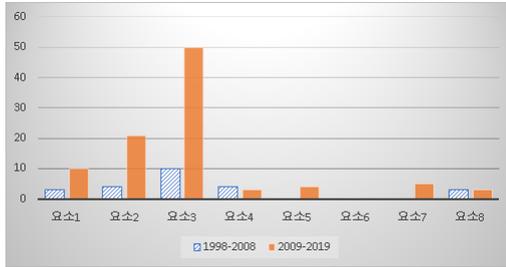
각 연구주제별 연구물 분포를 백분율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와 비교해보면,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연구주제 외에 큰 변화가 있는 주제는 슈퍼바이저의 ‘개인적 특성’ 연구, 슈퍼비전 과정 중 ‘관계’, ‘경험’ 등이 연구주제의 상대적인 비중 면에서 이전 시기보다 큰 폭으로

〈표 2〉 연구기간별 슈퍼비전 연구의 각 주제별 연구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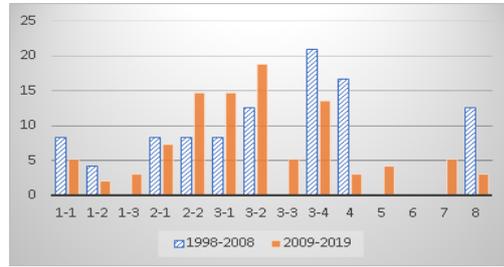
분류	내용	세부내용	1998-2008년				2009-2019년			
			논문편수		%		논문편수		%	
요소1	슈퍼바이저 특성	1-1 발달적/개인적 특성	2		8.3		5		5.2	
		1-2 임상적 기술	1	3	4.2	12.5	2	10	2.1	10.4
		1-3 슈퍼바이저의 윤리	0		0		3		3.1	
요소2	슈퍼바이저 특성	2-1 발달수준	2	4	8.3	16.6	7	21	7.3	21.9
		2-2 개인적 특성	2		8.3		14		14.6	
요소3	슈퍼비전 과정	3-1 관계	2		8.3		14		14.6	
		3-2 경험	3	10	12.5	41.7	18	50	18.8	52.1
		3-3 내용 및 방법	0		0		5		5.2	
		3-4 평가	5		20.9		13		13.5	
요소4	치료자 훈련	-	4	4	16.7	16.7	3	3	3.1	3.1
요소5	심리치료과정	-	0	0	0	0	4	4	4.2	4.2
요소6	내담자 특성	-	0	0	0	0	0	0	0	0
요소7	슈퍼바이저 훈련 [†]	-	0	0	0	0	5	5	5.2	5.2
요소8	기타 연구 [†]	-	3	3	12.5	12.5	3	3	3.1	3.1
총계*			24		100		96		100	

* 두 개 이상의 요소에 포함된 연구들로 인해 논문의 총계는 분석대상 논문 수(2009년 이전 21편, 2009년 이후 76편) 보다 많음.

† 김지연과 김광웅(2008)의 연구결과 추가된 영역임.



(그림 2) 기간별 각 주제 연구논문 편수 비교(단위:편)



(그림 3) 기간별 각 주제 연구논문의 백분율 비교 (단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주제별로 연구동향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각 주제별 연구들의 목록은 부록 참고)²⁾.

1) 슈퍼바이저 특성 연구

슈퍼바이저 특성에 대한 논문은 양적으로는 3편에서 10편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슈퍼비전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시기에 비해 줄어든 상태이다(12.5%에서 10.4%로). 그러나 전반적인 연구주제의 다양화와 특별히 2009년 이후로 슈퍼바이저 윤리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연구주제도 슈퍼바이저의 ‘발달적/개인적 특성’, ‘임상적 기술’, ‘슈퍼바이저의 윤리’ 등으로 더 세분화되었다. 모든 연구가 슈퍼바이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1편을 제외한 9편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발달적/개인적 특성 연구

먼저 슈퍼바이저의 발달적/개인적 특성 연구에서는 초심슈퍼바이저와 대가들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추적하고 개념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발달수준에 따라

초심 슈퍼바이저의 경험을 조명하는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슈퍼바이저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심슈퍼바이저’라는 단어가 연구에서 자주 눈에 띄는 점도 주목된다.

(2) 임상적 기술 연구

초심슈퍼바이저에 대한 관심은 이들과 경력 슈퍼바이저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까지 이어져서, 슈퍼바이저의 임상적 기술 연구에서는 슈퍼비전의 경력 수준에 따른 수행 및 성과 차이 연구가 이루어졌다.

(3) 슈퍼바이저 윤리 연구

2017년부터 슈퍼바이저의 윤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슈퍼비전의 윤리적 요소, 슈퍼바이저가 지각한 슈퍼바이저의 윤리행동과 윤리지침 이행 등이 연구되었다.

2) 슈퍼바이저 특성 연구

슈퍼바이저의 특성 연구는 ‘슈퍼바이저의 발달수준’ 및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된다. 연구논문 수는 모두 21편으로 4편이었던 이전 시기보다 5.2배 증가하였다. 슈

2) 2008년까지의 연구들의 주제별 연구 목록은 김지연, 김광웅(2008)을 참고할 것.

퍼바이지의 '발달수준' 보다는 '개인적 특성' 과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였다. 이 영역의 21 편 연구 중 15편(76%)이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발달수준 연구

슈퍼바이지 발달수준과 관련된 논문은 총 7 편이었다. 연구들은 슈퍼바이지의 발달수준이 독립변수가 되는 경우와 종속변수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슈퍼바이지의 발달 수준이 슈퍼비전 만족도나 슈퍼비전 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 등이 있고, 후자는 성찰중심 슈퍼비전, 집단슈퍼비전, 교육 분석 경험, 슈퍼비전 관계 등이 상담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 등이다.

(2) 개인적 특성 연구

슈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 연구가 이전 시기에는 2편에 불과했으나 최근 11년간 14편으로 7배나 급증하였다. 이 영역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슈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인 수치심, 평가불안, 애착정도, 자기효능감, 정서적 유대, 완벽주의, 피드백 수용도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이 변수화 되었다. 슈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은 주로 독립변수로 설정되어 슈퍼비전 작업동맹을 포함한 관계, 슈퍼비전 만족도, 슈퍼바이지의 역전이 관리 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로 이어졌으나, 슈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을 종속 변수로 두고 어떤 변인들이 슈퍼바이지의 진로걱정이나 역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 등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14편 중 13편이 모두 척도를 활용한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매개효과, 조절효과 등을 살펴보는 모델검증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특이한 점은 슈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 14편 중 5편(35.7%)이 음악치료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이었다.

3) 슈퍼비전 과정 연구

2009년 이전과 이후 시기 모두 슈퍼비전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연구주제는 '슈퍼비전 과정'이다. 이전 11년간 연구 중 10편(41.7%), 이후 연구 중 50편(52.1%)이 슈퍼비전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슈퍼비전 과정 연구에는 슈퍼비전에서의 '관계', '경험', '내용 및 방법', '평가' 등의 하위영역이 있다.

(1) 슈퍼비전 관계 연구

슈퍼비전 '관계' 영역의 연구를 보면, 이전 11년간 2편이었던 연구가 2009년 이후 14편으로 7배 증가하였다. 이 분야 연구에서 핵심용어는 '작업동맹' 혹은 '슈퍼비전 관계'인데, 많은 연구가 '작업동맹'을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 때로는 매개변수로 두고 슈퍼비전 과정에 대한 가설적인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슈퍼바이지의 자기개방, 애착 등 슈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이나 슈퍼비전 만족도 등의 성과, 그리고 그러한 변수들과 작업동맹 및 슈퍼비전 관계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들의 주요 논점이었다. 14편의 연구 중 11편이 이와 같은 양적 연구였으며, 그 외 2편의 질적 연구, 1편의 문헌연구가 포함되었다. 질적 연구는 슈퍼비전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

(2) 슈퍼비전 경험 연구

슈퍼비전의 '경험' 연구는 이전 시기에 3편의 연구가 있었으나 2009년 이후 18편의 연구

가 이루어졌다. 최근 10년간 슈퍼비전 경험 연구는 치료영역과 슈퍼비전 형식에서 다양성과 실험성이 돋보였다. 치료영역에서는 개인상담 이외에 놀이치료(박현아, 류승민, 유미숙, 2018; 유미숙, 최명선, 정윤경, 2009), 미술치료(최선남, 박미형, 2015; 홍혜정, 2017; 전경진, 장연집, 2018), 가족치료(전영주, 2012; 남경숙, 전영주, 2014) 등이 이루어졌고, 슈퍼비전의 형식적인 면에서의 다양성도 두드러졌는데, 개인 슈퍼비전 이외에 집단 슈퍼비전(박현아 등, 2018; 최선남, 박미형, 2015; 하정, 홍지영, 2011), 동료 슈퍼비전(김정미, 박은선, 2018; 최서운, 2019), 임상실습현장에서의 슈퍼비전(김선혜, 한영주, 2019; 전경진, 장연집, 2018), 내담자참여 녹화 슈퍼비전(남경숙, 전영주, 2014), 동영상을 활용한 자기슈퍼비전(정보라, 최선남, 2019) 등 다채로운 슈퍼비전의 형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슈퍼비전에서 사회구성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평등적이며 협력적인 슈퍼비전을 시도한 연구들(남경숙, 전영주, 2014; 전영주, 2012; 최지원, 2015; 2017)이 가족치료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슈퍼비전 경험 연구는 그 연구주체의 실험적 특성을 반영하듯, 100%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3) 슈퍼비전 내용 및 방법 연구

2008년까지의 연구에서 ‘슈퍼비전 내용 및 방법’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9년 이후 5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슈퍼바이저나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슈퍼비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인식)을 탐색하였으며, 21~205명까지의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보다 적합하고 성과

지향적인 슈퍼비전의 구조를 탐색하는 양적방법의 연구도 수행했다(유성경, 두경희, 김은하, 정여주, 2009; 최선남, 2009a; 2009b). 한편, 사례개념화 슈퍼비전 모델에 대한 과정-성과 단일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모델의 유용성을 탐색하는 시도도 있었다(이명우, 2011).

(4) 슈퍼비전 평가 연구

슈퍼비전 평가연구는 이전 시기에 비교적 많은 5편(20.9%)의 연구가 이루어진 데 비해 최근 11년간은 13편(13.5%)의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주체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전 시기에는 주로 ‘슈퍼비전 만족도’ 연구가 4편, 슈퍼비전 회기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가 1편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기조는 2009년 이후에 다소 변화되어 ‘슈퍼비전 만족도’ 연구는 13편 중 5편이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8편의 연구가 슈퍼비전 척도 관련 연구였다. 여기에는 척도 문항이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 척도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13편 중 9편의 연구가 모두 척도를 사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4) 치료자 훈련 연구

치료자 훈련연구는 이전 시기에 4편(16.7%)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 이후로는 3편(3.1%)밖에 발표되지 않아, 연구주체로서의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는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대한 연구가 상담학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슈퍼비전과 관련된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즉 슈퍼비전과 다른 상담자교육/훈련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8년~2008년 치료자 훈련연구로는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연

구 2편, 사례개념화 요소 개발 1편, 교과과정 교육과 훈련 연구 1편 등이 있었다. 2009년 이후 연구에서는 유사한 주제이지만, 성인대상 개인상담이 아닌 집단상담이나 음악치료 등에서 슈퍼비전 교육요구분석 연구가 이루어졌고, 치료자 교육과 슈퍼비전 경험, 그리고 상담자 발달 간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5) 심리치료과정 연구

심리치료과정 영역의 슈퍼비전 연구는 심리치료과정과 슈퍼비전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연구를 말한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는 2008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최근 11년 간 4편 정도의 연구가 이러한 심리치료와 슈퍼비전 과정 간의 연계성을 다루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에 내담자와 상담자(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가 같은 장소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형식의 현장슈퍼비전(이은진, 이문희, 2013)이나 내담자 참여 녹화슈퍼비전(남경숙, 전영주, 2014)에서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가 2편 이루어졌다. 치료과정에서의 상담자의 역전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슈퍼비전에서 병행적으로 재연하면서 슈퍼비전(노항규, 2016)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탐색도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과정의 섬세함을 담아내야 하는 관계로 모두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6) 내담자 특성 연구

내담자 특성 연구는 일반 상담연구에서는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지만 슈퍼비전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2009년 이전과 이후 각 11년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7) 슈퍼바이저 훈련 연구

슈퍼비전 연구에서 ‘치료자훈련’ 영역의 연구 비중이 줄어드는 것(16.7%에서 3.1%)과 반대로 슈퍼바이저 훈련 영역의 연구는 최근 11년 사이에 5편이나 새롭게 등장했다. 이 중 3편의 연구는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의 요소를 문헌분석하거나 교육요구도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2편은 슈퍼바이저의 경력 수준에 따른 수행과 성과의 차이를 검토하여 슈퍼바이저 훈련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였다. 이 분야 연구는 이홍숙, 최한나(2013)의 연구가 시작인데, 즉 슈퍼바이저가 훈련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2013년 즈음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기타 연구

기타 연구는 슈퍼바이저나 슈퍼비전 특성, 슈퍼비전 과정 및 심리치료과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 동향분석연구가 해당하며, 2009년 이후 연구 중 기타 연구에는 슈퍼비전 동향분석 연구 3편이 포함되었다.

2.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상담대상, 슈퍼비전 유형, 발행기관, 연구방법 등의 분포

슈퍼비전 연구논문을 상담대상별로 분류해보면, 이전 11년 동안에는 17편(81%)의 논문이 성인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 논문이었으나, 2009년 이후 연구에서는 성인내담자 대상의 슈퍼비전 논문이 56편(73.6%)으로 축소되고 아동, 청소년 대상의 슈퍼비전 논문이 17편(22.4%), 가족상담의 슈퍼비전 논문이 3편(4%)으로, 상담대상에 있어서 다양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3〉 슈퍼비전 연구 논문의 상담대상별, 슈퍼비전 유형별 분포

분류	세부 분류	1998년-2008년	2009년-2019년
상담대상	아동·청소년	4편(19%)	17편(22.4%)
	성인	17편(81%)	56편(73.6%)
	가족	0편(0%)	3편(4%)
	합 계	21편(100%)	76편(100%)
슈퍼비전 유형	개인슈퍼비전	20편(95%)	52편(68.4%)
	집단슈퍼비전	1편(5%)	14편(18.4%)
	합 계*	21편(100%)	66편(86.8%)

* 2009년-2019년 연구논문 중 개인이나 집단을 구분할 수 없거나, 둘 다 포함하는 연구 10편(13.2%)은 제외됨.

슈퍼비전 유형에 있어서는 이전 시기의 20편(95%)의 논문이 개인슈퍼비전에 대한 것이었다면, 2009년 이후에는 집단슈퍼비전에 대한 논문이 14편(18.4%)이나 출판되어 연구대상 슈퍼비전 유형에서도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슈퍼비전 연구가 어떤 학술지에 발표되었는지에 대한 발행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8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상담및심리치료·일반)가 13편(61.9%)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에서 출판된 논문이 과반을 차지했다면, 최근 11년간은 19편(25%)의 논문을 출판한 한국상담학회지(상담학연구)의 기여가 두드러지게 상승한 반면 한국심리학회지의 기여는 10편(13.2%)으로 축소되었고, 그 외에 한국음악치료학회지, 미술치료연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서 슈퍼비전 연구가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상담학회지(상담학연구)가 심리학 이외의 보다 다양한 상담의 영역을 포괄하는 성격을 띠는 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상담분야의 전문학술지(총 25종)에서 슈퍼비전 연구논문의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저변의 확장과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 면에서 슈퍼비전 연구의 분포를 보면, 2008년까지의 연구는 17편(80%)인 대다수의 연구가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44편(56.5%)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중이 비슷해지며 질적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주제별 분석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연구주체에 따라 질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가 있으며, 또한 탐색적, 실험적 단계에 있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질적 연구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연구는 100% 질적 연구였으며, 이 외에 ‘슈퍼바이저의 발달적 특성’, ‘심리치료과정’과 슈퍼비전 간의 연계성을 다루는 논문은 거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슈퍼바이저 특성 연구는 16편(해당주제 연구의 76%)이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연구주제별 방법론 활용에서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활용된 질적 연구방법 중에는 내용

〈표 4〉 발행기관별, 분석방법 분포

분류	세부 분류	1998년-2008년	2009년-2019년	
발 행 기 관	한국상담학회지(상담학연구)	4편(19%)	19편(25%)	
	한국심리학회지(상담및심리치료·일반)	13편(61.9%)	10편(13.2%)	
	한국음악치료학회지	-	7편(9.2%)	
	미술치료연구	-	7편(9.2%)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편(9.5%)	4편(5.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4편(5.2%)	
	한국가족치료학회지(가족과가족치료)	-	3편(4%)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	3편(4%)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지	-	3편(4%)	
	서강대학교 인간이해	1편(4.8%)	2편(2.6%)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편(4.8%)	-	
	기타(1편의 논문만 발표된 학회지)	-	14편(18.4%)	
	합 계		21편(100%)	76편(100%)
	연 구 방 법	양적 양적 연구 전체	17편(80%)	34편(43.5%)
질적 질적 연구 전체		4편(20%)	44편(56.5%)	
내용분석		1편(5%)	12편(15.4%)	
합의적 질적 연구(CQR, CQR-M) [†]		1편(5%)	8편(10.3%)	
근거이론		1편(5%)	5편(6.4%)	
문헌연구		-	5편(6.4%)	
현상학 및 해석적 현상학 연구		-	5편(6.4%)	
내러티브 연구		-	4편(5.1%)	
개념도 연구		1편(5%)	2편(2.6%)	
사례연구		-	1편(1.3%)	
포커스 집단 연구		-	1편(1.3%)	
자료 분석		-	1편(1.3%)	
합 계*		21편(100%)	78편(100%)*	

* 2009-2019년 논문 중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 연구가 1편, 질적 연구방법이 2개 사용된 연구가 1편 있음.

†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분석(12편, 15.4%)과 합의적 질적 연구(8편, 10.3%)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근거이론, 문헌연구,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등도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 편이어서, 질적 연구방법의 스펙트럼상 다양한 관점의 질적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슈퍼비전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KCI 등재 이상의 학회지에 게재된 상담 슈퍼비전 연구물 76편을 분석하였다. 주제별 연구 분포 분석을 위해 Wampold와 Holloway(1997)의 슈퍼비전 인과적 모델의 틀을 사용하였으며, 상담 대상, 슈퍼비전 유형, 발표학술지, 연구방법 등에 따른 연구물의 분포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1년간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최근 슈퍼비전 연구 동향이 과거에 비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난 11년간 슈퍼비전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요한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2009년 이후 슈퍼비전 연구의 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슈퍼비전 연구는 등재 학술지 발표 논문을 기준으로 이전 11년간의 연구에 비해 약 3.6배의 양적 성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는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증설, 상담 현장의 확대 및 증가, 상담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에 연구요건 강화 등의 맥락에서 연구자의 저변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슈퍼비전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상담학 분야 논문의 양적 증가

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 상담학 논문에서 슈퍼비전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슈퍼비전 연구에서 2009년 이전과 이후 시기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연구주제는 ‘슈퍼비전 과정’이었으며, 그 하위영역 중에서도 슈퍼비전 ‘관계’와 ‘경험’ 연구이었다. 국외 연구들(Westefeld, 2009; Worthen & Mc Neill, 1996)이 슈퍼비전의 핵심요소는 좋은 슈퍼비전 관계이며, 슈퍼비전 관계가 상담자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심수단(Gazzola & Teiault, 2007)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국내 슈퍼비전 연구에서도 슈퍼비전 관계와 경험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슈퍼비전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주제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1년간은 2008년까지의 등재 학술지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슈퍼바이저 윤리 연구, 슈퍼비전의 내용과 방법 관련 연구, 심리치료과정과 슈퍼비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슈퍼바이저 훈련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슈퍼비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각 연구주제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확대는 슈퍼비전 연구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난 11년간의 슈퍼비전 연구는 이전 시기에 비해 연구방법상의 다양화를 나타냈다. 특히 이전 시기에 20%에 불과하던 질적 연구가 전체 연구의 5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이 연구주제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도 합의적 질적 연구부터 내러티브와 현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양적 연구방법도 기술통계 분석부터 고급통계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넷째, 2009년 이후 슈퍼비전 연구는 상담대상이나 발표학술지에 있어서 이전 시기에 비해 다양화되어 상담학 분야의 저변확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상담대상에 있어서는 이전시기의 연구 대부분(81%)이 성인 개인내담자 상담 슈퍼비전이었고, 그 나머지(19%)는 아동, 청소년상담에 대한 슈퍼비전 연구였다면, 최근 11년간은 성인 개인상담에 대한 슈퍼비전 연구는 73.6%로 줄어들면서 아동·청소년 내담자(22.4%), 가족내담자(4%) 등으로 상담대상에 있어서의 다변화를 보여준다. 발표학술지의 경우, 2008년 이전까지는 등재학술지 중 한국심리학회지(상담및심리치료)의 기여가 지배적이며, 슈퍼비전 연구출판 등재학술지가 총 5개에 불과했다면 최근 11년 동안 한국심리학회지의 비중은 현격히 줄어들고 한국상담학회지(상담학연구)를 비롯한 한국음악치료학회지, 미술치료연구 등 총 25개 학회지를 통해 슈퍼비전 연구가 출판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2009년 이후 11년간의 연구 성과 중에서 연구자들은 향후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중요성을 띠는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슈퍼비전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연구주제도 다양화, 세분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여전히 탐구되지 못하고 있는 연구주제들이 발견된다. Wampold와 Holloway(1997)의 슈퍼비전 인과적 모델의 틀에서 평가해보건대, 슈퍼바이저 훈련, 심리치료과정, 내담자특성 등 슈퍼비전과 인과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되는 요소들

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슈퍼비전 연구의 틀 안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별도의 주제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슈퍼비전 연구가 이러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보다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연구주제들 간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정문주, 조한익, 2016)이나 연구주제의 다양화 필요성(김지연, 김광웅, 2008; 두경희 등, 2008; 손은정, 2010) 등에 대하여는 선행 동향 연구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바이다.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를 잡을 때 Wampold와 Holloway(1997) 모형과 같은 큰 그림 안에서 연구가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문제를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2008년까지의 연구에서는 전혀 실시되지 않았던 슈퍼바이저의 교육과 훈련, 윤리에 대한 연구가 최근 1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슈퍼바이저 훈련에 대한 5편의 연구와 슈퍼바이저 윤리에 대한 3편의 연구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전 시기 연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초심슈퍼바이저’와 ‘슈퍼비전 대가’라는 구분도 등장했다(장유진, 2019; 전정운, 한재희, 2012). 이러한 슈퍼비전 연구에서의 변화는 슈퍼바이저 집단의 분화라는 임상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된다.

장유진(2019)은 경력슈퍼바이저 8명 중 1명(13%)만이 슈퍼비전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슈퍼바이저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슈퍼바이저들의 윤리 수준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일어나고 있다(안하얀, 서영석, 박성화, 이정운, 최유리, 2017). 슈퍼바이저의

비윤리적 행동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민정, 김수은, 2017)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국 상담현장의 자격 및 수련체계가 확립되고 슈퍼바이저로 진입하는 수련상담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슈퍼바이저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윤리 등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슈퍼바이저 훈련에 대한 연구는 2013년부터, 슈퍼바이저 윤리에 대한 연구는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슈퍼바이저의 교육과 훈련, 윤리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셋째, 2009년 이후 ‘슈퍼비전 경험’ 분야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슈퍼비전에 대한 실험적, 탐색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료슈퍼비전, 집단슈퍼비전, 임상실습현장에서의 슈퍼비전, 내담자 참여 녹화슈퍼비전, 내담자가 참여하는 현장슈퍼비전, 동영상을 활용한 자기슈퍼비전 등의 경험을 담은 연구들은 슈퍼비전 형식과 과정에 대한 입상이 및 연구자들의 융통성 있는 이해를 확산시키고 이들이 또 다른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의 발달을 위해 슈퍼비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나 슈퍼비전의 형식과 과정, 내용은 지속적으로 진화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연구하여 그 효과성과 장단점을 규명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실제로 슈퍼바이저들은 상담회기 녹화 영상에 대한 리뷰, 상담에 대한 현장 관찰 등과 같은 보다 생생한 방법을 통한 슈퍼비전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지만(유성경 등, 2009) 실제 슈퍼비전의 형식과 내용은 늘 해

오던 방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슈퍼비전 방식을 찾아나가는 연구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온라인 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온라인 슈퍼비전의 다양한 방식,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기 슈퍼비전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담긴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2009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의 슈퍼비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슈퍼비전에서 나타나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위계적 관계는 유교문화에 근간을 둔 한국문화만의 특성은 아니며, 전문가적 지식의 중심과 힘을 가지는 근대문화의 특성이기도 하다(최지원, 2015). 이러한 슈퍼비전 관계에서의 위계성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슈퍼바이지로 하여금 슈퍼비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자기노출을 꺼리게 하고 쌍방향 소통의 부재와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억압성을 경험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손승희, 2005). 집단 슈퍼비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례이해와 다양한 관점 수용의 경험(박현아, 류승민, 유미숙, 2018; 최선남, 박미형, 2015; 하정, 홍지영, 2011), 동료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수평적 관계, 신뢰형성, 접근용이성과 개방성(김정미, 박은선, 2018; 최서윤, 2019) 등은 슈퍼비전의 위계적 관계를 벗어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슈퍼바이지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구성주의적 슈퍼비전은 슈퍼비전 관계에서의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슈퍼바이지와 내담자 간의 독특한 관계와 방식을 존중한다. 또한 슈퍼바이저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슈퍼바이지가 자신의 성

장을 위한 정체성이야기를 확장해갈 수 있도록 한다(Parry & Daon, 1994).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적 슈퍼비전의 원리가 구현된 내러티브 슈퍼비전을 경험한 슈퍼바이저들의 경험이 최지원(2017)에 의해 보고되었다. 사회구성주의적 슈퍼비전은 치료팀을 구성하여 치료팀과 슈퍼바이저가 현장에서 개입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논의과정을 내담가족이 관찰하는 역동적인 가족치료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었다(Freedman & Combs, 2009). 전영주 등(남경숙, 전영주, 2014; 전영주, 2012)의 연구는 이와 같은 슈퍼비전의 모델을 내담자가 참여한 녹화슈퍼비전이라는 형식으로 국내에서 시도한 실험적 연구로서 이 또한 구성주의적 슈퍼비전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치료분야의 슈퍼비전연구가 상담 슈퍼비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족치료분야 주요 학술지가 출판하는 슈퍼비전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전체 출판연구물의 4%)이다. 앞으로 가족치료분야에서의 슈퍼비전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2009년 이후 연구에서도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슈퍼비전 연구의 연구대상이 여전히 슈퍼바이저에게 집중되어 있고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희박하다는 점은 다른 동향연구(손은정, 2010; 정지애, 2018)에서도 일관되게 지적되어오고 있다. 슈퍼비전 현상에 대하여 척도를 통한 측정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직접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정지애, 2018)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질적 연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시키기 위한 보다 엄밀한 노력이 필

요하다는 지적(손은정, 2010)도 여전히 유효하다. 탐색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슈퍼비전 과정 영역의 질적 연구 주제 중 양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척도개발 등도 과제로 남는다(고홍월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출판된 등재학술지 발표 논문만으로 최근 11년간의 슈퍼비전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어권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권 연구들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내연구 동향의 상대적인 위치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상당한 양의 연구들이 등재학술지 이외의 학술지에 출판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오는 제한점도 있다. 또한 각 연구주제별 범주 분류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든 애매한 연구들의 분류 결과가 보다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검토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최근 11년 동안의 상담슈퍼비전 연구를 그 이전 11년간의 연구동향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슈퍼비전 연구에 대한 총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성과를 결산하며, 중요한 논점들을 짚어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본 연구가 향후 상담슈퍼비전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고, 시간이 경과한 후 또 다른 동향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다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홍월, 김하나, 김병관 (2016). 슈퍼비전 척도 동향 분석: 슈퍼비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1-24.

- 김광웅, 최명선, 류진아, 정유진 (2006). 아동 상담 연구 동향: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1997-2005). *놀이치료연구*, 9(3), 47-65.
- 김정미, 박은선 (2018). 미술치료사들의 동료 슈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 *미술치료연구*, 25(6), 769-787.
- 김지연, 김광웅 (2008). 국내의 상담 슈퍼비전 연구 고찰. *놀이치료연구*, 11(4), 1-22.
- _____ (2009). 놀이치료 슈퍼바이저의 효과적인 슈퍼비전 행동 문항개발 예비연구. *놀이치료연구*, 12(1), 15-32.
- _____ (2012).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의 슈퍼바이저 행동 척도 개발. *놀이치료연구*, 15(1), 111-126.
- 남경숙, 전영주 (2014). 내담자가 참여한 녹화 슈퍼비전의 임상적 활용 - 십대자녀의 부모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치료학회지:가족과 가족치료*, 22(4), 301-322.
- 두경희, 김계현, 김동민 (2008). 슈퍼비전 성과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9(3), 1007-1021.
- 박현아, 류승민, 유미숙 (2018). 초심 놀이치료자들의 집단 슈퍼비전 및 기술훈련 집단 경험에 대한 연구: 학교놀이치료 현장실습 경험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22(2), 85-112.
- 소수연, 장성숙 (2011).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에 관한 슈퍼바이저의 지각 연구. *상담학연구*, 12(3), 1051-1067.
- _____ (2014). 숙련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26(2), 193-222.
- 손승희 (2005). 슈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17(1), 57-74.
- 손은정 (2010). 슈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놀이치료연구*, 13(3), 1-21.
- 안하얀, 서영석, 박성화, 이정윤, 최유리 (2017). 슈퍼바이저가 지각한 상담 슈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 *상담 및 심리치료*, 29(4), 915-952.
- 유성경, 김영빈, 김형수, 민경화, 이일화, 최한나 (2004). 슈퍼비전 회기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5(2), 263-275.
- 유성경, 두경희, 김은하, 정여주 (2009). 슈퍼비전 형식,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슈퍼바이저 인식. *상담학연구*, 10(4), 1907-1927.
- 이동혁, 유성경 (2000).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 대상 분석: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8(1), 37-58.
- 이명우 (2011). 사례개념화 슈퍼비전 과정-성과 단일 사례연구: 수련기 초기 슈퍼바이저 대상.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2), 19-42.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이홍숙, 최한나 (2013).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경력 수준에 따른 슈퍼비전 수행과 성과의 차이. *상담학연구*, 14(3), 1679-1698.
- 장유진 (2019). 상담 슈퍼비전 대가들의 전문성 발달 과정.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489-518.
- 전영주 (2012). 녹화 슈퍼비전에서 가족치료 훈련생의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가족과 가족치료*, 20(1), 111-133.
- 전정운, 한재희 (2012). 초심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3(6), 2607-2624.
- 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자 발달과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6), 141-164.
- 정지애 (2018). 상담에서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국내 연구 동향. *실천교육교육논문지*, 10(1), 63-72.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 (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최서운 (2019). 동료 슈퍼비전의 이해와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1), 1-23.
- 최선남, 박미형 (2015). 미술치료 집단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연구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1), 373-392.
- 최지원 (2015). 이야기치료에서의 슈퍼비전: 상담자로서의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 만들기.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지, 26(2), 169-200.
- _____ (2017). 은유를 활용한 내러티브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2), 179-212.
- 하정, 홍지영 (2011). 집단 슈퍼비전 경험을 통한 상담자의 발달적 변화 과정. 아시아교육연구, 12(3), 279-30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Freedman, J., & Combs, G. (2009). 이야기치료 - 선호하는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 -. (김유숙, 전영주, 정혜정 역, 원제: *Narrative therapy*). 서울: 학지사. (원저 1996년 발행).
- Gazzola, N., & Teiault, A. (2007). Relational themes in counseling supervision: Broadening and narrowing processe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41, 228-243.
- Holloway, E. L., & Neufeldt, S. A. (1995). Supervision: Its contributions to treatment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2), 207-213.
- Jacobs, D. (1995). *The supervisory encounter: A Guide for teachers of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nd psychoanaly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Norcross, J. C. (2000). Psychotherapist self-care: Practitioner-tested, research informed strategi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31(7), 710-713.
- Olds, K., & Hawkins, R. (2014). Precursors to measuring outcomes in clinical supervision: A thematic analysi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8(3), 158-164.
- Parry, A., & Doan, R. (1994). *Story re-vision: Narrative therapy in the post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 Todd, T. C., & Storm, C. L. (2008). 가족치료슈퍼비전의 이론과 실제(한국가족치료학회 역, 원제: *The complete systemic supervisor*). 서울: 학지사. (원저 2002년 발행).
- Wampold, B. E., & Holloway, E. L.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Methodology, design, and evalua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research*. New York: Wiley.
- Wampold, B. E., Lichtenberg, J. W., & Waehler, C. A. (2002). Principles of empirically supported interventions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2), 192-217.
- Westefeld, J. S. (2009). Supervision of psychotherapy: Models, issues, and recommend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2), 296-316.
- Worthen, V., & McNeill, B. W. (1996).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good" supervision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5-34.

- 논문접수일 : 2020년 04월 30일
- 심사시작일 : 2020년 05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6월 04일

Research Trends of Counseling Supervision in Korea - Comparing with the Previous Period (1998-2008) -

Hye-young Kwon

Eunsuk Cho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counseling supervision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we used 76 papers from KCI listed journals published between 2009-2019 for the analysis.

Methods: Wampold and Holloway's supervision model (1997) was used for analysis by research topic. Also, papers were categorized by client type, supervision format, publishing journal, and research method. Findings were compared to 21 studies published in the previous period (1998-2008).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increased 3.6 times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papers on "supervise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supervision" was significant. In addition, research on supervisor training and ethics, supervision structure and outcome, and counseling process were emerging during the time. Research methods were also diversified and advanced, and the us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variety of journals also increased. In particular, recent studies have shown various experiments in various forms of supervision and social constructionist supervision. **Conclusions:** Based on this results, authors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of supervision research in Korea.

Keywords: *counseling supervision, research trends, social constructionist supervision, research method*

〈부록〉 2009~2019년 슈퍼비전 연구의 주제별 연구논문 목록 (KCI 등재학술지 논문, 발표년도 순)

구분	지자	연도	연구제목	연구방법	학술지
슈퍼바이저 특성	전정운, 한재희	2012	초심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근거이론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오효정, 최한나	2015	초보 슈퍼바이저가 겪는 어려움과 대처방법	CQR [†]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김명화, 홍혜영	2017a	초심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교육인류학연구
	김명화, 홍혜영	2018	초심 슈퍼바이저의 역전이 경험과 의미연구	현상학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장유진	2019	상담 슈퍼비전 대가들의 전문성 발달 과정	CQR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이홍숙, 최한나	2013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경력 수준에 따른 슈퍼비전 수행과 성과의 차이	상관관계, t-test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소수연, 장성숙	2014	숙련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CQR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김민정, 김수은	2017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슈퍼바이저의 윤리행동수준이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test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안하얀 등	2017	슈퍼바이저가 지각한 상담 슈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양은아, 권경인	2019	슈퍼비전 윤리 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술통계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슈퍼바이저 발달 수준	허재경, 김지현	2009	성찰 중심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자 발달의 변화과정 탐색 연구	내용분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하 정, 홍지영	2011	집단 슈퍼비전 경험을 통한 상담자의 발달적 변화과정	근거이론	서울대학교 아시아교육연구
	김민정, 조화진	2015	교육수준, 실무, 슈퍼비전 경험과 교육 분석 경험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비교연구	변량분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김동민	2015	슈퍼비전 관계가 예술치료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기신념의 매개와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김정희, 안귀여루	2018	슈퍼바이저의 발달수준, 슈퍼비전 기대수준, 지각된 슈퍼비전 스타일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강은영	2019	슈퍼비전을 통한 목회상담자의 정체성 발달과 성장과정	내용분석	목회와 상담
	김동민 등	2019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음악치료 전문성과 슈퍼비전 교육요구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CQR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김동민	2009	음악치료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치심과 평가불안에 대한 질적연구	CQR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최선남	2009b	슈퍼바이저의 미술치료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 분석	기술통계	미술치료연구
	박진희, 유미숙	2011	슈퍼바이저의 성인이해가 높아질수록 슈퍼비전 과정에서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단순회귀, 중다회귀분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김동민	2012	음악치료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애착유형, 자기효능감, 정서적 유대, 수치심, 평가불안 간의 관계	기술통계, 변량, 구조방정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국내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동향 - 이전 시기(1998년~2008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부록〉 2009~2019년 슈퍼비전 연구의 주제별 연구논문 목록 (KCI 등재학술지 논문, 발표년도 순) (계속 1)

구분	저자	연도	연구제목	연구방법	학술지	
슈퍼비전 이 지 특 성	개인적 특성	서은경, 유성경	2012	슈퍼비전의 완벽주의와 개인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이경숙	2015	음악치료 슈퍼비전이 지각하는 피드백 수용도, 슈퍼비전 스타일, 슈퍼비전 발달수준, 슈퍼비전 작업동맹 간의 구조분석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김진진, 강영신	2016	상담자의 자기애와 역전이 행동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관계기대의 조절효과	기술통계, 위계적회귀분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이경숙, 김영신	2016	음악치료 슈퍼비전이 지각하는 슈퍼비전 만족도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분석: 예비전문가와 전문가 집단 비교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박명준 등	2017	슈퍼비전의 예측전력과 슈퍼비전 만족도 간의 관계: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기술통계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이경숙	2018	슈퍼비전 유형이 음악치료 슈퍼비전의 수용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정미선	2018	상담 전공 특수대학원생의 상담 누적시간, 슈퍼비전 누적시간이 진로걱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상관관계, 위계적회귀분석	한국웰니스학회
		현민홍, 홍혜영	2018	슈퍼비전의 지지가 초심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손은정	2019	슈퍼비전의 불안정 예측과 역할갈등이 슈퍼비전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경력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기술통계,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심리치료
		차지은, 김현수	2019	아동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과 대인관계성향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	한국아동심리치료학 회지
슈퍼비 전 과 정	관계	박진희, 유미숙	2011	슈퍼비전의 성인애착이 놀이치료 슈퍼비전 과정에서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단순회귀, 중다회귀분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소수연, 장성숙	2011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에 관한 슈퍼비전의 지각 연구	문헌연구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서은경, 유성경	2012	슈퍼비전의 완벽주의와 개인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심리치료
		강순화 등	2013	슈퍼비전자와 슈퍼비전의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구조방정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주영아 등	2014	슈퍼비전이 지각한 작업동맹이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슈퍼비전 자기개방을 매개로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청소년상담연구
		김동민	2015	슈퍼비전 관계가 예술치료 슈퍼비전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기신념의 매개와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이경숙	2015	음악치료 슈퍼비전이 지각하는 피드백 수용도, 슈퍼비전 스타일, 슈퍼비전 발달수준, 슈퍼비전 작업동맹 간의 구조분석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김민정, 김수은	2017	슈퍼비전이 지각하는 슈퍼비전의 윤리행동수준이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술통계, t-test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심리치료
		박명준 등	2017	슈퍼비전의 예측전력과 슈퍼비전 만족도 간의 관계: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기술통계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부록〉 2009~2019년 슈퍼비전 연구의 주제별 연구논문 목록 (KCI 등재학술지 논문, 발표년도 순) (계속 2)

구분	저자	연도	연구제목	연구방법	학술지
관계	주은선	2017	슈퍼비전 관계형성 실행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박보람	2018	미술치료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	한국예술치료학회지
	이경숙	2018	슈퍼비전 유형이 음악치료 슈퍼바이저의 수용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현민홍, 홍혜영	2018	슈퍼바이저의 지지가 초심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손은정	2019	슈퍼바이저의 불안정 예측과 역할갈등이 슈퍼비전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경력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기술통계,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심리치료
슈퍼비전 과정	유미숙 등	2009	숙련 놀이치료자의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	한국놀이치료학회지
	하 정, 홍지영	2011	집단 슈퍼비전 경험을 통한 상담자의 발달적 변화 과정	근거이론	서울대학교 아시아교육연구
	전영주	2012	녹화 슈퍼비전에서 가족치료 훈련생의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내용분석, t-test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가족과가족치료
	이은진, 이문희	2013	이동식(李東植)의 현장 슈퍼비전 과정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사례연구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남경숙, 전영주	2014	내담자가 참여한 녹화 슈퍼비전의 임상적 활용-심대 자녀의 부모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가족과가족치료
	지승희 등	2014	슈퍼비전 경험과 되고 싶은 슈퍼바이저 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 [†]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최선남, 박미형	2015	미술치료 집단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포커스집단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김명화, 홍혜영	2017a	초심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교육인류학연구
	최지원	2017	은유를 활용한 내러티브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내러티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홍혜정	2017	미술치료 임상실습 현장 슈퍼바이저 체험연구	해석학적현상학	예술심리치료연구
	김도연, 이명우	2018	상담자의 개인 상담슈퍼비전 참여 경험 연구	근거이론	교육치료연구
	김정미, 박은선	2018	미술치료사들의 동료 슈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	내용분석	미술치료연구
	박현아 등	2018	초심 놀이치료자들의 집단 슈퍼비전 및 기술훈련 집단 경험에 대한 연구: 학교놀이치료 현장실습 경험을 중심으로	현상학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놀이치료연구
	윤성근 등	2018	슈퍼바이저의 경력에 따른 초심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개념도	서강대학교 인간이해
	전경진, 장연집	2018	기관미술치료 실습지에서 받은 미술치료학 전공 석사학위과정생의 현장 슈퍼비전 체험연구	해석학적현상학	미술치료연구
김선혜, 한영주	2019	상담 현장실습생들의 집단 슈퍼비전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정보라, 최선남	2019	미술치료사의 동영상을 활용한 자기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미술치료연구	
최서운	2019	동료 슈퍼비전의 이해와 활용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국내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동향 - 이전 시기(1998년~2008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부록〉 2009~2019년 슈퍼비전 연구의 주제별 연구논문 목록 (KCI 등재학술지 논문, 발표년도 순) (계속 3)

구분	저자	연도	연구제목	연구방법	학술지	
내용 및 방법	유성경 등	2009	슈퍼비전 형식,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슈퍼바이저 인식	빈도분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최선남	2009a	미술치료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인식 분석	빈도분석		
	최선남	2009b	슈퍼바이저의 미술치료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 분석	기술통계	미술치료연구	
	이명우	2011	사례개념화 슈퍼비전 과정-성과 단일 사례연구 : 수련기 초기 슈퍼바이저 대상	내용분석	대구대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이영숙 등	2017	미술치료의 치료요인 범주화 연구: 수련감독 미술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념도	미술치료연구	
	김지연, 김광웅	2009	놀이치료 슈퍼바이저의 효과적인 슈퍼비전 행동 문항개발 예비연구	내용분석, CQR [†]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이수현 김봉환	2009	슈퍼비전 기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구조방정식, 다변량분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최선남	2009c	슈퍼비전 만족도에 따른 슈퍼바이저에 대한 지각과 상호작용 질의 차이	기술통계, 변량분석	미술치료연구	
	김지연, 김광웅	2012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의 슈퍼바이저 행동 척도 개발	상관분석, 요인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최연실	2012	동료 슈퍼비전에서의 평가도구 활용 가능성 탐색: 미시적 상담 슈퍼비전 모델(MSM)에 근거한 상담면접평정양식 사용을 중심으로	내용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가족과가족치료	
슈퍼비전 과정	박은선, 홍윤선	2013	전반적인 미술치료 슈퍼비전과 미술을 기반으로 한 슈퍼비전 현황,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카이검정, t-test	예술심리치료연구	
	이홍숙, 최한나	2013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경력 수준에 따른 슈퍼비전 수행과 성과의 차이	상관관계, t-test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최정현	2013	슈퍼비전 활동에 관한 통합적 접근: 자문, 교육, 상담, 평가 중심으로	자료분석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고홍월 등	2016	슈퍼비전 척도 동향분석: 슈퍼비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신성만 등	2016	슈퍼바이저 예측전략 척도의 국내 타당화 연구	구조방정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이경숙, 김영신	2016	음악치료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슈퍼비전 만족도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분석: 예비전문가와 전문가 집단 비교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김민정, 김수은	2017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슈퍼바이저의 윤리행동수준이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test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이승미 등	2019	슈퍼바이저의 지지와 상담자 소진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상관관계, 위계적회귀분석	청소년학연구	
	치 료 자 혼 련	이미선, 권경인	2009	집단상담자 경력에 따른 집단상담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기술통계, 일원변량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김민정, 조화진	2015	교육수준, 실무, 슈퍼비전 경험과 교육 분석 경험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비교연구	변량분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김동민 등		2019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음악치료 전문성과 슈퍼비전 교육요구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CQR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부록〉 2009~2019년 슈퍼비전 연구의 주제별 연구논문 목록 (KCI 등재학술지 논문, 발표년도 순) (계속 4)

구분	저자	연도	연구제목	연구방법	학술지
심리치료과정	이은진, 이분희	2013	이동식(李東植)의 현장 슈퍼비전 과정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사례연구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남경숙, 전영주	2014	내담자가 참여한 녹화 슈퍼비전의 임상적 활용-심대 자녀의 부모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가족과가족치료
	유영권	2014	과정중심 집단 슈퍼비전 모델	내용분석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노향규	2016	역전이를 상담의 전환점으로 바꾸는 슈퍼비전: 슈퍼비전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내용분석	신학과 사회
슈퍼바이저 훈련	이홍숙, 최한나	2013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경력 수준에 따른 슈퍼비전 수행과 성과의 차이	상관관계, t-test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장세미, 장성숙	2016	상담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요소 연구: 슈퍼바이저 발달 요인과 슈퍼바이저 역량 요인 중심으로	문헌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김명화, 홍혜영	2017b	초심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교육 필요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CQR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윤성근 등	2018	슈퍼바이저의 경력에 따른 초심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개념도	서강대학교: 인간이해
	최서윤, 최한나	2019	초심 슈퍼바이저 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기타	손은정	2010	슈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문헌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자 발달과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메타분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정지애	2018	상담에서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국내 연구 동향	문헌연구	실천공학교육논문지

†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